존 프레임 『성경론』(P&R Korea·CLC 2014, 김진운 역)

프레임 · 다스리는 능력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

존 프레임 『성경론』(김진운 역, P&R Korea/CLC 2014), 3부 '하나님 말씀의 본질', '다스리는 능력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 다음 장이 제10장이므로 제9장으로 보임. 본문 쪽 표시는 120~123쪽이고 제10장이 125쪽에서 시작하므로, 이 장은 약 119~124쪽.

🧭 흐름 한눈에

프레임은 먼저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은 언제나 '주님'으로서 말씀하신다. 그러니 그분의 말씀에도 주님다운 성품, 곧 다스림·권위·임재가 드러날 것이라고 기대해야 한다. 이 장은 그 셋 가운데 첫째인 '다스리는 능력'을 다룬다. 프레임은 창조(없는 것을 있게 함)에서 출발한다. 이어서 섭리(세상을 붙듦), 심판(불과 칼), 구원(기적과 복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모든 일이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성경 전체에서 보여 준다. 다음으로 말씀이 언약의 복과 저주라는 양날을 가졌음을 밝힌다. 같은 말씀이 어떤 이는 살리고 어떤 이는 굳게 한다. 마지막으로 그 차이가 듣는 사람의 저항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에 달려 있다고 말한다. 말씀은 결코 무력하지 않으며, 그 능력은 하나님 자신의 전능함이라는 결론에 이른다.

📜 절별 정리

(원문에 소제목이 없어 논증 단락을 따라 8개 절로 나눔)

📜 1. 출발점: 주님은 주님으로서 말씀하신다

프레임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출발한다. 그 관계는 '주님과 종'의 관계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도 주님으로서 말씀하신다. 프레임이 보기에 주님 됨의 핵심 성품(주권적 속성)은 세 가지다. 모든 것을 다스리는 능력, 순종을 요구할 권위, 그리고 백성과 함께하시는 임재다. 하나님의 다른 모든 행동이 이 셋을 드러내듯,

'다스림'을 다룬다. 여기서 프레임이 강조하는 점이 있다. 말씀은 머릿속에 정보를 넣어 주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사건을 일으키는 '힘'이기도 하다.

1. 하나님은 언제나 '주님'으로서 말씀하신다
2. 주권적 속성 셋: 다스림·권위·임재
3. 이 장은 첫째인 '다스리는 능력'을 다룸
4. 말씀은 정보이면서 동시에 사건을 일으키는 힘

📜 2. 창조하는 말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은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다. 무생물에게, 그것도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에게 하신 말씀이다. “빛이 있으라” 하시자 빛이 생겼다. 듣는 쪽이 이해하고 반응해서 일이 된 것이 아니다. 말씀 자체가 존재를 불러냈다.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창조하는 말씀의 능력을 찬양한다. 시편 33편은 창세기 1장을 요약하는 노래다.

1. 첫 말씀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향했다
2. 말씀이 존재를 불러냈다(빛이 있으라)
3.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다고 부르시는 분
4. 성경은 말씀의 창조 능력을 찬양한다

> **창세기 1:3**
> “빛이 있으라” — 말씀만으로 존재가 생긴 첫 사례
>
>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 **로마서 4:17**
>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 — 창조 말씀의 성격 규정
>
>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시편 33:6

하늘과 만상이 여호와의 말씀과 입 기운으로 지어짐 — 창세기 1장의 시적 요약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시편 33:9

말씀하시매 이루어지고 명령하시매 섰다 — 말씀과 결과 사이에 틈이 없음

그가 말씀하시매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시매 견고히 섰도다

시편 148:5 (원문 '148:15-18'은 오기로 보임)

명령하시매 지음을 받음 — 창조 명령 찬양(원서 확인 필요)

시편 148:5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시므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요한복음 1:3, 10

만물이 말씀(로고스)으로 지어짐 — 신약의 창조 증언

요한복음 1:3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10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히브리서 1:2; 11:3

아들로 세계를 지으심, 말씀으로 세계가 지어짐 — 같은 증언

히브리서 1:2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1:3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늘과 땅이 말씀으로 있게 됨 — 창조와 심판을 잇는 다리(4절에서 다시)

5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6 이로 말미암아 그 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7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 3. 다스리는 말씀: 창조 후에도 세상을 붙드시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고 손을 떼신 것이 아니다. 지금도 같은 능력의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신다. 이것을 섭리라고 한다. 섭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보존하고 이끄시는 일이다. 시편 29편의 "여호와의 소리"는 폭풍과 숲과 광야를 뒤흔든다. 시편 147편과 148편에서는 눈·서리·얼음과 바람이 그분의 말씀과 명령으로 움직인다. 노아 홍수 뒤의 약속(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가 그치지 않음)도 말씀이 자연 질서를 붙든다는 뜻이다.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실 때 제자들이 놀란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결국 창조와 섭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있다.

1. 창조 뒤에도 말씀으로 계속 다스리신다
2. 날씨와 자연 질서도 말씀에 순종한다
3. 홍수 뒤 약속은 자연을 붙드는 말씀
4. 예수님의 말씀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

시편 29편

"여호와의 소리"가 자연을 뒤흔듦 — 말씀이 곧 다스림

시편 29장 1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2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3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렛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4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음이여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5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심이여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6]그 나무를 송아지 같이 뛰게 하심이여 레바논과 시룐으로 들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도다 …

시편 147:15-18

명령을 땅에 보내 눈·서리·얼음을 주관하고 말씀으로 녹이심

[15]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16]눈을 양털 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 같이 흩으시며 [17]우박을 떡 부스러기 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18]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시편 148:7-8

불·우박·눈·광풍이 그의 말씀을 따름

[7]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8]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창세기 1:9, 11, 22 (원문 '11:2'는 오기로 보임)

창조 명령이 땅·식물·생물의 질서를 정함

창세기 1:9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뭍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 1:11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창세기 1:22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창세기 8:21-22

땅이 있을 동안 계절과 밤낮이 쉬지 않음 — 말씀이 자연 질서를 보증

[21]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아니하리니 [22]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욥기 37:12

구름이 그의 명령대로 움직임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시편 18:15

여호와의 꾸지람에 물 밑과 땅의 기초가 드러남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 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시편 33:11

여호와의 계획(뜻)은 영원히 섬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시편 119:89-91

말씀이 하늘에 굳게 서고 땅이 그 규례대로 섬 — 섭리와 말씀의 직접 연결

[89]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90]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91]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마태복음 8:27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이가 누구냐 — 예수님의 말씀이 가진 다스리는 능력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히브리서 1:3

>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 **베드로후서 3장**
>
> 말씀으로 보존되어 심판 날까지 간수됨
>
> 1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2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3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4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5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6 이로 말미암아 그 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

📜 4. 심판하는 말씀: 불과 칼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실 때도 말씀은 힘 있게 작용한다. 먼저 죄인에게는 심판으로 온다. 성경은 그 힘을 눈에 보이게 그린다. 하나님이 소리를 내시면 땅이 녹고 나라들이 흔들린다. 베드로는 노아 홍수를 말씀에 의한 첫 창조와 나란히 놓는다. 세상을 있게 할 만큼 강한 말씀이라면, 모든 악을 멸할 만큼도 강하다는 뜻이다. 심판의 불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다. 엘리야 때의 불은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다. 다윗 때에는 죄인을 대신해 드린 제물 위에 불이 내렸다. 또 다른 그림으로, 말씀은 원수를 꺾는 날카로운 칼이자 바위를 부수는 방망이다. 바울이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 부른 것도 이 흐름에 있다.

1. 말씀은 죄인에게 심판으로 임한다
2. 창조한 말씀이 악을 멸할 말씀이다

4. 말씀은 칼이자 바위를 부수는 방망이
5. 바울의 “성령의 검”과 이어진다

시편 46:6

그가 소리를 내시매 땅이 녹음 — 심판하는 소리의 힘

뭇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매 땅이 녹았도다

이사야 30:30-31

여호와의 목소리에 앗수르가 낙담함

30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의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31 여호와의 목소리에 앗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이사야 66:6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 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호세아 6:5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다 — 말씀 자체가 심판의 도구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요엘 2:11

여호와께서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심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 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베드로후서 3:5-7

창조한 말씀이 홍수 심판과 마지막 불 심판도 행함 — 창조와 심판 비교

5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6 이로 말미암아 그 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7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욥기 41:19-21

입에서 나오는 불의 그림(리워야단 묘사를 프레임이 이미지로 인용)

19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 나오며 20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21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시편 18:7-8, 13-14

하나님의 입에서 불이 나오고 우렛소리로 원수를 흩으심

시편 18:7-8 7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8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시편 18:13-14 13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렛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14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심이여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예레미야 5:14 (원문 '5:4'는 오기로 보임)

내 말을 불이 되게 하고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함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예레미야 20:9

말씀이 선지자의 뼛속에서 불처럼 타오름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 23:29

내 말이 불 같지 않으냐, 바위를 쳐서 부수는 방망이 같지 않으냐 — 불과 방망이 두 그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열왕기상 18:24

불로 응답하는 신이 하나님 — 불은 불신앙에 대한 '응답'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역대상 21:26

죄인을 대신한 제물에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심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이사야 49:2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심

내 입을 날카로운 칼 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에베소서 6:17

>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 5. 구원하는 말씀: 기적과 복음

같은 말씀이 은혜로 구원할 만큼도 강하다. 하나님은 늙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이를 약속하시면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신다. 프레임은 이 문장을 “여호와께 너무 놀라운 말씀이 있겠느냐”로 직역할 수 있다고 본다. 히브리어 '다바르'는 '말'과 '일'을 함께 뜻할 수 있다. 가브리엘도 마리아에게 같은 말을 되새긴다. 직역하면 “어떤 말씀도 하나님께는 불가능하지 않다”이다. 다음은 백부장 이야기다. 그는 예수님께 집에 오실 필요 없이 “말씀만 하사”라고 청한다. 군대에서 명령 한마디로 사람이 움직이듯,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병이 떠날 줄 믿은 것이다. 프레임은 원문이 “말씀으로 말씀하소서”라는 겹친 표현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놀라신 그 믿음이 아마도 바로 말씀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해석한다. 사도들도 복음의 내용만이 아니라 그 능력을 기뻐했다. 복음은 표적을 동반할 뿐 아니라, 말씀 자체가 마음을 바꾸고 신자를 굳세게 한다.

1. 말씀은 심판뿐 아니라 구원의 능력이다
2. 이삭 탄생의 기적을 말씀에 돌리신다
3. 백부장은 '말씀만으로' 충분함을 믿었다
4. 복음은 내용과 함께 능력으로 기뻐할 것
5. 말씀 자체가 마음을 바꾸고 세운다

> **창세기 18:14**
>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 기적의 능력을 말씀에 돌림
>
>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 **누가복음 1:37**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예레미야 32:17, 27

주께는 할 수 없는 일이 없다 — 같은 고백(각주)

예레미야 32:17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예레미야 32:27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누가복음 7:7-9

백부장의 “말씀만 하사”와 예수님의 칭찬 — 말씀의 치유 능력을 믿는 믿음

7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8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9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로마서 1:16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데살로니가전서 1:5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으로 이름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말씀이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함 — 말씀 자체의 작용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빌립보서 2:16

"생명의 말씀" — 복음의 생명 주는 성격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달음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1:1 (원문 '요한복음 1:1'은 '생명의 말씀' 표현으로 보아 요한일서로 보임)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 같은 표현

요한일서 1:1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디모데후서 1:10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심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폐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 6. 양날의 말씀: 언약의 복과 저주

그래서 말씀은 심판과 복 두 방향으로 힘을 쓴다. 프레임은 이것을 '언약적 제재'라 부른다. 하나님은 언약 안에서 순종하는 이에게 복을, 불순종하는 이에게 심판을 약속하신다. 십계명에도 복의 약속(부모 공경)과 심판의 경고(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음)가 함께 들어 있다. 순종은 생명의 길이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듯 계명 자체가 죄에게 기회가 되기도 한다. 이사야는 처음부터 자기 설교가 백성을 오히려 둔하게

사도들도 자기 설교의 성격을 설명할 때 이 이사야 6장을 인용했다. 여기서 프레임은 신학생들에게 하던 경고를 덧붙인다. 성경을 몇 년씩 집중적으로 공부하더라도 믿음으로 듣지 않으면, 바로 그 말씀이 마음을 굳히고 심판의 불이 될 수 있다. 그러니 성경을 학문으로만 다루지 말라는 것이다.

1. 말씀은 복과 저주, 양날을 가졌다
2. 순종하면 생명, 계명이 죄의 기회도 됨
3. 이사야의 말씀이 백성을 굳게 했다
4. 예수님·사도도 이사야 6장을 인용했다
5. 성경을 학문으로만 읽으면 마음이 굳는다

> **신명기 27-28장**
> 순종에는 복, 불순종에는 저주 — 언약적 제재의 기본 본문

> **출애굽기 20:12**
> 부모 공경에 붙은 장수의 약속 — 계명의 '복' 쪽 날
>
>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 **출애굽기 20:7**
>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음 — 계명의 '심판' 쪽 날
>
>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 **레위기 18:5**
> 규례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 — 순종은 생명의 길
>
>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 **신명기 8:3**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시편 19편

율법이 영혼을 소성시킴 — 말씀의 생명 주는 능력

시편 19장 [1]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2]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3]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4]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5]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6]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함이여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

시편 119:25, 50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말씀이 나를 살림

시편 119:25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시편 119:50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로마서 7:7-25

계명이 죄에게 기회를 줌 — 같은 말씀이 사망의 계기가 되기도 함

[7]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8]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9]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10]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illegible] [11]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12]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

이사야 6:10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라 — 말씀이 굳게 하는 사역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마태복음 13:14-15; 마가복음 4:11-12; 누가복음 8:10

예수님이 비유 설교의 성격을 이사야 6장으로 설명

마태복음 13:14-15 [14]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15]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마가복음 4:11-12 [11]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12]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누가복음 8:10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2:37-40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음을 이사야 6장 성취로 설명

[37]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38]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사도행전 28:26-28

바울이 로마의 유대인에게 이사야 6장을 인용

[26]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27]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 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28]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로마서 11:8

하나님이 혼미한 심령을 주심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요한복음 15:22

내가 와서 말하지 않았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 들은 말씀이 책임을 지움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 7. 인격적인 능력, 주권적인 결정

말씀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다. 그런데 말씀의 능력을 말하는 본문에 성령이 늘 언급되지는 않는다. 프레임은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 기계적인 힘이 아니라 인격적인 힘이라는 뜻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같은 복음을 듣고 누구는 믿고 누구는 굳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프레임은 일부 루터주의자들의 설명을 소개하며 반박한다. 그들의

중력처럼 누구에게나 일률적으로 작용하는 비인격적 힘이 되어 버린다고 지적한다. 성경은 누가 말씀에 호의적으로 반응할지를 하나님이 직접 정하신다고 가르치며, 로마서 9장이 바로 그 논증이라는 것이다. 동시에 프레임은 반대쪽 오해도 막는다. 이것이 “성령이 함께하실 때만 말씀에 능력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무력하다”는 뜻은 아니다. 말씀은 결코 무력하지 않고 언제나 성령의 능력을 동반한다. 다만 그 능력이 복으로 작용할지 저주로 작용할지가 하나님의 주권적 뜻에 달려 있다.

1. 말씀의 능력은 성령의, 인격적인 능력
2. 반응의 차이는 하나님이 정하신다
3. '저항력 차이' 설명은 말씀을 기계로 만듦
4. 말씀은 언제나 성령과 함께, 늘 강력하다
5. 복이 될지 저주가 될지는 하나님의 뜻

> **데살로니가전서 1:5**
>
> 복음이 능력과 성령으로 이름 — 말씀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
>
>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 **로마서 9:1-28**
>
> 긍휼히 여길 자를 하나님이 정하심 — 반응의 차이는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
>
> [1]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3]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4]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 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5]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6]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7]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창세기 18:14

말씀은 결코 무능하지 않음(5절에서 본 근거를 다시 사용)

>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사야 55:11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음 — 성령이 '때때로만' 함께한다는 생각을 막음

>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 8. 얼마나 강한가: 하나님 자신의 전능

마지막 질문은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크냐는 것이다. 프레임의 답은 분명하다. 말씀의 능력은 하나님 자신의 전능함, 바로 그것이다. 하나님의 어떤 말씀도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그분 입에서 나간 말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룬다. 하나님이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신다는 솔로몬의 고백처럼, 말씀과 행동 사이에는 틈이 없다. 프레임은 이렇게 정리한다. 창조, 섭리, 심판, 은혜까지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능력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 각주에서는 여기에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까지 더하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모든 일을 요약하는 셈이라고 덧붙인다. 그 작정 자체도 성부·성자·성령 사이의 합의, 곧 일종의 말씀 사건이라는 것이다.

1. 말씀의 능력 = 하나님 자신의 전능함
2.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3. 입으로 하신 말씀을 손으로 이루신다
4. 창조·섭리·심판·은혜 모두 말씀으로
5. 영원한 작정도 삼위 사이의 말씀(각주)

이사야 55:11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역대하 6:15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 — 말씀과 성취의 일치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에스겔 1:3; 3:22

여호와의 손이 선지자 위에 있음 — 말씀과 '손'(능력)이 함께 감

에스겔 1:3 갈대아 땅 그발 강 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에스겔 3:22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결코 같은 상태로 있게 하지 않는다." (6절)

"하나님 말씀의 능력은 다름 아닌 그분 자신의 전능함이다." (8절)

⚖️ 오해와 반론

📖 용어

주권적 속성

하나님이 '주님'이심을 드러내는 핵심 성품. 프레임은 다스림(통제)·권위·임재 세

다스리는 능력(통제)
하나님이 모든 일을 뜻대로 일어나게 하시는 힘. 이 장에서는 그 힘이 말씀을 통해 나타난다는 점을 다룬다.

인격적 말씀 모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인격으로서 직접 우리에게 소통하시는 것으로 보는 프레임의 기본 틀. 말씀에 다스림·권위·임재가 다 담긴다.

섭리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지금도 보존하고 다스리며 목적지로 이끄시는 일.

언약적 제재
언약 안에서 순종에는 복을, 불순종에는 심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경고.

강퍅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 성경은 하나님이 이것을 심판으로 주시기도 한다고 말한다.

로고스 / 레마
둘 다 신약 헬라어에서 '말씀'으로 번역된다. 로고스가 더 넓은 말로 담화·이유·합리성까지 뜻할 수 있고, 레마는 주로 말해진 말을 가리킨다(프레임 각주).

비인격적 힘
전기나 중력처럼 누구에게나 기계적으로 똑같이 작용하는 힘. 프레임은 말씀의 능력이 이런 힘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작정
하나님이 영원 전에 창조·타락·구속을 포함한 모든 일을 계획하신 것. 프레임은 이것을 삼위 하나님 사이의 합의로 설명한다.

전능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성품. 프레임은 말씀의 능력이 곧 이 전능이라고 말한다.

💬 청년의 삶으로

✅ 이 장의 결론

- 하나님은 주님으로서 말씀하시며, 그 말씀에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다.
- 창조·섭리·심판·구원까지 하나님의 모든 일은 말씀으로 이루어진다.
- 같은 말씀이 믿음으로 듣는 이에게는 생명이, 거역하는 이에게는 굳어짐과 심판이 된다.
- 그 차이는 듣는 이의 저항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뜻에서 나오고, 말씀은 언제나 성령의 능력과 함께 간다.
- 말씀의 능력은 하나님 자신의 전능함이므로, 그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 이 장을 쓰는 편

- 성경론 2편 · 말씀하시는 하나님 · 말씀은 곧 하나님의 임재

빛다방 학습 노트 · 존 프레임 『성경론』(P&R Korea·CLC), B. B. 워필드 『성경의 영감과 권위』(CLC), 헤르만 바빙크 『개혁파 교의학』(새물결플러스)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1647)와 존 오웬의 논고(1659)는 공유 저작물로 우리 번역입니다.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 기준입니다. youtube.com/@빛다방